

부처님 전생담에서 배워봐!

자타카 18편 영한대역으로 실은 '자비의 샘'

어른·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쉽게 부처님 이야기를 배울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 부처님 전생담인 <자타카>를 영어로 번역한 책은 동화 같은 옛이야기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과 영어를 동시에 익히게 한다.

책은 영문과 우리말 번역문을 함께 실어 영어에 서투른 사람도 무리 없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특히 우리말 번역에서는 가능한 영문의 의미와 구조를 살렸다. 어려운 단어는 그 뜻을 간단하게 달아서 쉽고 빠른 영어 학습에도 도움을 준다.

<자타카>는 '현생에 태어나기 전까지의 전생 이야기'라는 뜻으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말한다. <자타카>는 <쿠다카니까야>에 속하는 초기불교 경전으로 도덕과 윤리를 깨우치도록 도우며, 불가에서는 인성개발의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졌다. 책에 실린 <자타카>의 내용들은 원전의 내용을 각색해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어린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어려운 설법이 아닌 왕상인 도둑 동물 등으로 표현된 부처님 생애를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풀어 놓았다.

또 사성제 팔정도 업 삼십삼천 아수라 마라 등 기본적인 불교 용어를 산스크리

트어와 팔리어의 어원과 함께 영어로 제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외국어 학습을 돕고 있다.

<자타카>는 예로부터 출가수행자와 재가법사들이 설법에 널리 인용해 왔다. 이미 100년 전에 서구의 팔리경전학회에서 영어로 번역돼 널리 읽혀져 온 <자타카>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설명할 때 예로 많이 인용됐다. <자타카>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생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직면해야 할지 알려준다.

책은 자타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불교와 영어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참가에서는 인성개발의 중요한 지점으로 여겨졌다. 책에 실린 <자타카>의 내용들은 원전의 내용을 각색해 쉽고 재미있는 설명으로 어린이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번 <자비의 샘>은 이번 <자타카> 이야기를 국제 포교사 이추경씨가 옮겨 2009년 1월에 출간한 <지혜의 샘>에 이어 두 번째로 출간한 책이다.

자비의 샘 | 이추경 옮김 | 불광출판사 | 9000원

이은정 기자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

옛이야기 통해 우리 삶을 재발견하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옛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 년에 한두 번 꺼내 읽는 한복이나 추운 겨울을 실감나게 해주는 한옥 같은 우리 옛것들은 단지 지나간 과거일 뿐이고, 아련한 향수의 대상일 뿐일까.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로 옛것은 불편하고 빨리 버려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때도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 아니다. 한복, 한식, 한옥 같은 옛것들은 우리 삶의 뿌리여서 현대를 사는 우리의 존재 가치를 더 확고하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글로벌시대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묻는 세계인들에게 우리 옛것들은 때로는 활기차게 때로는 수줍게 사람들 앞에 자태를 뽐낸다. 우리의 '옛이야기'도 전통을 이야기할 때 내놓을 수 없다. 설화는 민중의 기대를 반영한다. 우리 땅에서 씌워 튀워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과 함께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설화다.

경인년 호랑이해에 백두대간을 타고 살아 숨 쉬고 있는 설화들이 환경운동가 김하돈 시인에 의해 세상에 나왔다. 김하돈 시인은 십 년이 넘도록 백두대간을 보전

하기 위한 시민운동을 벌여 온 환경운동가. 그가 여러 해 동안 백두대간을 오르내리며 수집한 설화들 중에 '백두대간을 꼭 빼달라' 설화 50편만을 추렸다. 한번쯤은 들어봤을지언정 설화들인데 백두대간을 따라가며 읽는 설화들이 시간을 거슬러 오르는 것처럼 실감나게 한다.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 시작하지만 갈

수 없는 곳 북녘은 비워 둔 채, 군사분계선부터 지리산까지 산맥을 따라 내려가며 구수하게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다. 백두대간의 숲한 설화 중에서 이 책에 실은 설화 50편은 이야기의 완성도나 재미를 떠나 백두대간과 얼마나 더 어울리는지를 먼저 생각했다, 지은이는 말한다. 그래서 설화의 무대를 찾아가 보고 싶어 할 이들을 위한 안내 글도 빼놓지 않았다. 설화를 소개하고 이어 사진을 곁들여 설화의 유래와 의미를 설명하는 해설이 따르고, 그트머리에 설화의 무대를 중심으로 여행

할 수 있는 '백두대간 여행하기'가 나온다. 그래서 설화를 통해 백두대간이 더욱 풍성해지고 살갑게 다가올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오세암 설화는 다양한 예술 장르로 소개되어 익숙하지만, 설화라는 것이 사람에게 따라 이야기가 가감되는 특성이 있어 독자들이 알고 있는 설화와 비교

해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백두대간의 끝지리산 마고단의 마고할미 설화도 그런 맥락에서 읽어보기 바란다. "아득한 옛날 천신의 딸 마고선녀가 지리산으로 내려왔다. 마고선녀는 이 땅을 두루 관광하고 다스릴 신들을 낳기 위해 배필을 찾았는데 마침 반야봉에서 도를 닦던 반야를 만났다..."

백두대간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이 땅의 이권에 따라 개발의 몸살을 앓고 있다. 지은이는 환경운동가로서 정부의 개발 정책에 맞서 비판하는 강연과 글쓰기

에 많은 힘을 쏟았다. 그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상처를 다스릴 방법으로 '케케묵은' 우리의 옛이야기를 '지금 살아있는 이야기'로 살리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고 한다.

백두대간은 사람도 물론이고 못 목숨볼 이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미래가 깃들여 있는 백두대간이 더 이상 파헤쳐지지 않고 마지막 원시서정의 생태 공간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라는 지은이의 간절한 마음이 책을 읽는 동안 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리라 믿는다.

그 산맥은 호랑이 등허리를 닮았다 / 김하돈 지음 / 호미 / 1만3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 관심이 많은 주부다.



심리학으로 재해석한 고전이야기

정신의학자 셸던 콕, 고전에 임상사례 덧붙여 풀이

저명한 정신의학자이자 순례자인 저자 셸던 콕은 삶의 미로를 헤매는 이들에게 저마다의 내면을 성찰할 길을 제시한다. 저자는 다양한 고전을 통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을 심리학의 틀에서 말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일반적인 서구 정신의학에 근거하지 않고, 노장사상과 불교, 주역과 같은 동양사상까지도 넓혀서 자신의 경험과, 임상실례 등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이야기를 풀어 놓는다. 특히 이 책은 열한 가지 고전에 나오는 다양한 사례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준다라는 것이 특징이다.

<성경>에서는 손상된 주체성을 회복하려는 여성의 순례를, <신타르타>에서는 삶의 궁극적인 비밀을 밝혀내는 순례를 보여주며, <캔터베리 이야기>는 사랑

과 정의, <맥베스>에서는 맹렬한 권력 추구 등을 풍부한 임상사례들을 곁들여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 나갔다.

고전의 주옥같은 경구와 이야기들이 결집된 심리학적 순례는 우리를 신타르타로 만들기도 하고, 맥베스처럼 탐욕적인 모습을 드러내게도 하며, 돈키호테처럼 열정이 넘치는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여정은 저자 자신의 순례이며, 그와 함께했던 많은 환자들의 경험이었으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거나 가야할 길이기도 하다.

저자인 셸던 B. 콕은 New School of Social Reseach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여러 교도소와 중환병원에서 환자들을 도왔으며, 오랫동안 워싱턴 D.C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했다.

천년의 지혜, 내 마음의 빗장을 열다 | 셸던 B. 콕 · 김훈 옮김 | 여름언덕 | 1만 2000원

이은정 기자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났다”

정휴 스님 '떠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느냐' 서 선사들의 해탈 담야

누구나 오늘을 살고 어제를 추억하지만,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불안감이 시달리기 마련이다. 각박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삶이 언제 마감하게 될지 몰라 불안해한다.

책은 이런 삶을 죽음에 이끌려 가는 삶이 아닌, 죽음을 다가가서 자유로워지는 삶을 이야기한다.

저자인 정휴 스님은 선사들의 입적기를 다룬 <전등록(傳燈錄)>을 탐독해 열반의 경지에 이른 선사들의 입적을 주시했다.

너무도 쉽고 간단한 일인 듯 홀연히 세상을 떠나는 선사들의 모습은 마치 드라마틱하게 연출한 영화의 한 장면 같다. 그 속에서 저자는 버리고 비워야 근원이 드러나듯 참된 영혼이 자유를 얻으려면 육신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

았다. 그리고 설악산에 입산해 죽음이 아니라 삶에 가장 절실한 화두를 들고 명상을 거듭하며 그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저자는 서문에서 "삶 속에서 죽음을 완성한 사람일수록 입적에 다다라 삶의 여유를 드러내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회인 선사는 입적에 다다라 자신의 육신을 깊은 산 속에 버려 굶주린 짐승들의 요기 거리가 되도록 하라고 유언했고, 봉암사를 중창한 지증 국사는 제자들과 차를 마시다가 앉아서 열반을 맞이했다"라고 소개한다.

선사들이 이처럼 죽음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삶과 죽음이 완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책은 적고 있다.

저자는 "그리움이 없는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마음에 비원을 간직한채 간절히 기다린다"며 "이 글을 쓰면서 죽음에서 조금이나마 벗어 나게 됐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삶속에서 죽음을 완성해야 죽음이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정진 중에 있다.

떠나기 좋은 날이 따로 있느냐 | 정휴 스님 지음 · 백중하 사진 | 랜덤하우스 | 1만 18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석인은 물을 길고 목녀는 꽃을 따네	진제	메일경제신문
2	행복도 내 착품입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누구 없는가	법전	김영사
4	한 사람은 모두를 모두는 한 사람을	법정	문학의 숲
5	열두 달 절집 밥상	대안	웅진북하우스
6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7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	조계종출판사
8	일기일회	법정	문학의 숲
9	망글 마음 이름다운 절	금강	불광출판사
10	5분참선	현담	선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15권 출간! 앙산, 향연, 입제선사의 주옥같은 공안이 실려 있다. 뿐만 아니라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 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진강 대선사 법어집 달다

원문을 새길 수 있도록 직역한 초발심자경문

02-3494-2460 www.zenparadise.com

사찰 건축의 얼굴 문 "문" 확! 바꿔드립니다

홍승으로 만들어집니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조각이 섬세합니다. 문화유산이 되도록 견고합니다.

- 문짜의 종류 : 사살 꽃살문, 육살 꽃살문, 빗살문, 사천왕문 금강역사문, 33관음문, 16나한문, 등자문, 조각문 주문제작
- 1,250나한 그림책 1권 - 판매금액 180,000원
- 입금계좌 : 농협 174392-56-064352 (예금주 : 이에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78-1 성불사내
- 불사상담문의 041)567-2600 / 011-421-5337

인터넷 주소창에 **고건축** 검색어 삽입

www.ehanok.com

목조 · PC고건축 · 사찰문 · 나한 문화재수리가능보유등록 제 1853호

한국고건축 금호 임영창 합창

생명 에너지를 궁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원인종 요가마을

21년전통 조상의 얼과 은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함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응축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0,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마용) 기본 배송비 2500원 (50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 3만원 이상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지죽염 10g) 증정.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동 속곡동 54번지 www.msij.co.kr

"우리 가정에 쉽고 편리한 찜질 문화를 선사합니다"

황금빛 찜질로 건강100세!

황금불가마 사은 이벤트

2010.2.1 ~ 2010.2.20

- 불가마 골드는 5분 충전으로 2-3시간의 무선온열 품 · 찜질 체험 · 삼파준바이오, 토르마린, 비장탄 등 배합으로 원적외선 및 음이온 발생 · 금 도금처리, 온열요법 및 과열요법, 유행과 중화 가능 ·

사랑하는 분께 건강과 행복을 선물하세요

event 1

황금불가마 2세트 구매시

_황금슬림불가마 세트 무료증정

event 2

황금불가마 1세트 구매시

_핫패드 2박스(60장) 무료증정

event 3

황금슬림 불가마 1세트 구매시

_핫패드 1박스(30장) 무료증정

www.buddhabook.co.kr

(주)동성행림 | 심전 대리점 송정미 011-9865-9401/070-7523-9401